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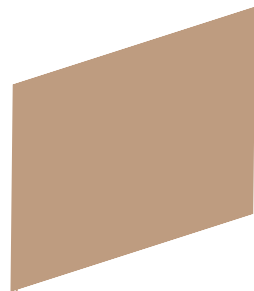


EAI
EAST ASIA INSTITUTE

Contents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 3 사랑방 5기 조문희
- 7 사랑방 6기 조소진
- 10 사랑방 7기 이하형
- 15 사랑방 7기, 8기 이화영
- 19 사랑방 12기 장도경
- 23 사랑방 14기, 15기 김대영
- 25 사랑방 15기 정다은
- 28 사랑방 16기 손승포
- 32 사랑방 17기 유지현
- 33 사랑방 19기 전선미
- 35 사랑방 20기 김민수



#1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5기 조문희 (2015-07-29)



안녕하세요. ‘마음의 거울’을 가진 청년, EAI 사랑방 5기 수료생 조문희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듯함은 그리함일 수 없음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EAI 사랑방]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 믿으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다행이 [EAI 사랑방]을 통해 저는 마음의 거울 하나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깊이 보는 눈과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은 별개가 아님을 선부르나마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은 공부

“미칠 것 같다.” 이 말을 지난 5개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주 한주의 읽기 자료가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군주론, 리바이어던, 루소의 생피에르 비판, 영구평화론, 그리고 몇 개의 참고 논문을 읽어가야 했습니다. 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세미나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내용도 온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연습일기를 쓰고, 지적 공백을 절감하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날카롭기만 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카, 모겐소, 왈츠, 웬트 등 잘 알려진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저를 가까스로 읽었고, 카플란, 불, 포퍼, 쿤 등의 국제정치학 및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을 훑듯이 보았습니다. 역사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었고,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의 흐름에도 잠깐이나마 발을 담갔습니다. 읽을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꾸역꾸역 읽고 토해내듯 썼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잊었습니다.

공부함의 의미를 생각하다

다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전의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공부와 2차 문헌 참조를 통해 국제정치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 하늘의 별자리를 하나쯤 갖고 있는 학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와의 처절한 대결 속에서 길어 올린 그들 각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했고, 그 시대의 사상사적 맥락을 알지 못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왈츠가 TIP에서 정말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인지, 왈츠는 왜 '구조'의 문제를 지각하게 되었는지, 한 편의 독서 이후 제기된 질문들은 모두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조차 제대로 던지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하나, 내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식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이점,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전환기를 맞이한 것인지,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변화의 예감 속에서 우리는 공부의 뿌리를 지금과 같이 해도 좋은지 혹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매주 질문은 꼬리를 물어 학생들 모두의 마음에 절실하게 들어박혔습니다.

'한계'에도 탐색이 필요하다

사랑방 5기의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일본 규슈 지역으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각자 맡았던 지역에 관해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곳은 데지마였습니다. 나가사키 내부 그 작은 공간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즈키 타다오의 <쇄국론>을 소재로 삼았던 저의 연구는, 서구의 일본 인식과 일본의 서구 인식, 양자의 교류 속에서 나타난 사회 변동과 대외관 변화가 모두 담겨져야 했습니다. '전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5기 조문희

한 학기의 사랑방 공부. 짧다면 짧은 배움이었지만, 하영선 교수님은 국제정치학이 단순한 사회과학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개념사, 형성사라는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제정치라는 현상이 지닌 복잡성을 사상시키게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주이용희 선생의 '전파'라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동서고금 가운데 서금에만 치우친 공부가 얼마나 얇은 것인지를, 동고도 살피되고 또한 부족한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동-서-고-금이 교류 속에서 현상과 개념을 만들고 변화시켜간 탓입니다. 전파라는 관점에 서서, 그 긴 역사 속에서 공간의 교류를 모두 살필 수 있을지 아득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계 안에서'는 교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입니다. 분명 다 살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한 평생을 걸어볼 만 하다면, 다만 한계 안에서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교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나보다 한계의 크기가 큰 사람, 그것도 그 자신의 한계까지 발휘하는 사람에게서 듣게 되었을 때 그 자극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보다 앞서 간 이들의 삶, 앓, 함, 그리고 꿈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사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불이 나의 삶과 앓과 함, 그리고 꿈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찾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야 자신의 한계를 밝혀볼 결단이 섰을 따름입니다.

'짐승만을 쫓는 이는 태산을 보지 못한다'

회남자의 한 구절입니다. 답사 첫날 저녁 하영선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짐승만을 쫓는 이는 태산을 보지 못한다.”는 구절에서 저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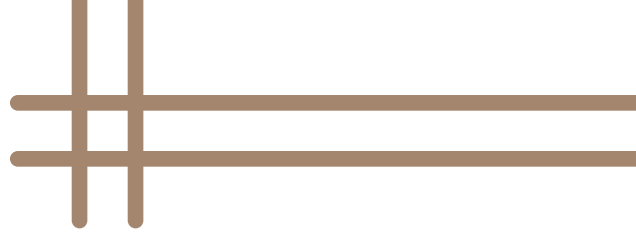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5기 조문희

"오늘날처럼 사회변동이 격심한 시대에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분하게 공부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최고학부에 들어왔는지, 또 들어오려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상황이 긴박해져 학문보다 실천운동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설피게 대학 같은 곳에 들어오기보다 생동하는 노동운동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학문에 전념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며 쉽지 않은 지적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같은 인식에 대한 정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학교에 있어도 끝내 학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의 엄격함이나 깊이 사고하는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저희들은 일본의 장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래디컬(radical)이라는 말은 본래 '사물의 근원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래디컬하게 학문해보지 않겠습니까."

- 마루야마 마사오 "공부와 학문에 대한 두세 가지 조언"(1949)

우리가 오를 산이 태산인지 작은 둔덕인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짐승만 좇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짐승보다 더 큰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겨레의 미래도 바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고민이 박규수로부터, 오늘날 하영선 교수님의 사랑방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2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6기 조소진 (2016-01-27)

안녕하세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랑방 6기 수료생 조소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저를 사랑방으로 이끌게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그리고자 하는 모습, 설계하고자 하는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조각, 조각을 모으면 큰 그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제 자신이 ‘무엇’과 ‘왜’를 간과한 채 제 발걸음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고, 꿈을 좇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변곡점이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제풀에 지쳐 멈춰 섰을 겁니다. 동아시아 무대의 천하질서부터 근대 복합질서까지 3000년의 시공간을 살폈던 한 학기동안 저는 세 가지 두드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드림: 읽어서 안다고?

삶의 진폭이 좁았던 저에게 사랑방에서의 6개월은 성장통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처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죽어있는 문헌에 숨을 불어넣는 일, 형세와 기세를 고려해 무대와 주인공을 복원하는 일, 끌리는 대상과의 지적연애, 그리고 답사지에서의 발표. 모든 것이 저에게겐 처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첫 수업시간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페어뱅크(Fairbank)와 로싸비(Rossabi)의 글을 얼마만큼 이해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어진 자료를 읽었기에, 대부분 이해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읽었지만, 제 가슴속엔 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활자 그대로, 표면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각과 고민은 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6기 조소진

‘읽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석학적 시각’, 선생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죽어있는 텍스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느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자료의 행간에서 그들과 마주해 고민을 이해하고 다시 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각들을 가슴으로 살피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두드림: 나의 첫 지적 연애

6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맡았던 곳과 주제에 대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청나라의 여름 궁전 이화원에서, 서태후의 두 얼굴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연애 초보자인 저에게 ‘밀당의 귀재’ 서태후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청일전쟁 패배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서태후에 대한 평가는 비난과 비판의 부정적 표현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선, 쌓여있는 것들을 모두 거둬내야 했습니다. 백하우스(Backhouse)의 위조된 문서부터,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재현까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색안경이 되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의 맨얼굴을 봤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어두워져 가는 청나라의 끝자락을 잡았던 서태후를 만나기 위해선 19세기 서세동점(西世東漸)의 태풍을 마주해야 했고, 이홍장과 옹동화의 대립으로 치달았던 제당과 후당의 국내정치적 싸움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태후는 폭군보단 딜레마 속에 괴로워했던 결정권자였다는 것을.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국내정치 싸움 속에서 국제정치를 어떻게 전개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원치 않았던 서양과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의 문명적 충돌을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의 괴로움,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고 ‘기록’한 현재의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두드림: 왜?

『연암집』 ‘답창애’ 세 번째 편지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을의 어린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다가, 읽기를 싫어해서 꾸짖었더니, 그 애가 말했소. “하늘을 보니 푸르고 푸른데, ‘하늘 천(天)’자는 왜 푸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며, ‘왜’ 우리는 한국이 주도하는 설제도를 그리고, 제시하지 못하는지. ‘왜 고민해야 하는가’의 목적론과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의 존재론 사이에서 선생님은 주연만이 빛나라는 법은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물상이 약하더라도, 거인들이 존경하는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매력 있는 ‘한국형 기준’제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은 시공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한국형 네트워크 지식국가 구상’으로 까지 이어지신 듯 했습니다. 방법론이 아닌, 목적론에 대해 고민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000년을 읽어내기 위해 지난 3000년의 역사를 살펴봤던 사랑방의 의미 또한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내내, 선생님의 질문은 버리고 버린 펜 같았습니다. 제 얕은 고민과 생각은 선생님의 질문에 맞닿기 전에 떨어지기 일쑤였고, 금요일마다 부족한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운 마음을 달래야했습니다.

성장통은 뼈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 근육의 성장이 느려서 생기곤 합니다. 사랑방에서 얻었던 질문과 깨달음으로 온 성장통은 제 지적근육을 단련시키며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께선, 꿈은 현실을 ‘꾸미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현실화 될 수 있는 현래(현재-미래)와 미거(미래-과거)적 요소도 함께 봐야 한다고도 덧붙이셨죠.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하영선 교수님의 사랑방까지. 있는 힘껏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 한, 현래와 미거가 공존하는 꿈의 이어달리기는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3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7기 이하형 (2017-01-23)



“처음으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뜻을 먼저 세워야만 한다. 반드시 스스로 성인(聖人)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개의 터럭만큼도 자신의 능력을 낮게 보고 그 목표로부터 물러서거나 다른 일로 미루려는 생각을 지녀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공부의 신’ 율곡 이이가 후학들에게 올바른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 제1장(立志)의 첫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대학원에 들어간 저에게 EAI 사랑방은 초심으로 돌아가 공부에 대한 뜻을 세우게 해주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담백하고 솔직하게 나누고자 부족한 글 솜씨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하영선

제가 사랑방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하.영.선.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하영선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학과 역사학 사이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하던 저에게 사랑방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방 제7기에 지원하였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의 한 구절처럼 사랑방은 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두드리고 연 것은 사랑방의 문이었지만 사랑방이 두드리고 열어준 것은 저의 두뇌와 가슴이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의 한 학기

한 주 한 주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원과 사랑방을 병행하면서 한 학기 동안 ‘월화수목금금금’을 살았습니다. ‘월화수목’은 예습일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리딩을 하느라 책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요일의 연장 즉, ‘금금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의 사랑방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의 말씀과 리딩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이를 곱씹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일간의 ‘불금’을 보내고 내면 다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거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주(東州) 이용희와 만청(晩晴) 하영선에서 시작하여 마키아벨리, 홉스, 칸트, 루소를 거쳐 카아, 니부어, 콰이트, 불, 모젠소를 넘어 모델스키, 왈츠, 포퍼, 쿤, 웬트 등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학자들과 ‘지적 연애’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학자들과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매력적이어서 ‘지적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주의자야, 자유주의자야, 아니면 구성주의자야?” 이러한 물음을 머리에 이고 한 학기 동안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방의 중반을 돌파했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길들이 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책들과 논문들을 읽고 있으며, 수업계획서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복합(複合)의 세계정치학, 그 빛줄기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혼란스럽고 어두컴컴했던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복합주의자가 되겠어!”라는 포부를 가슴에 품고 ‘나는 OO주의자인가’라는 물음의 짐을 머리에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양다리, 삼다리를 거쳐 숨가쁘게 지적 연애를 해서였을까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제가 ‘모쏨(모처럼 쏨로)’로 보낸 한 학기였지만 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외롭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방 동기들과 하영선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학문적 고민을 함께 나누던 사이에서 서로의 삶과 꿈을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지적 유격훈련’을 같이 한 동기들 사이는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으로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영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훈련병들이 해이해질 때면 따끔한 일침으로 전의를 다시 일깨우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겉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았지만 항상 학생들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셨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했던 ‘머리로 하는 연애’와 더불어 동기 및 교수님과 ‘마음으로 하는 연애’가 저의 두뇌와 가슴을 두드리고 또 열어주었습니다.

영딩이로 하는 공부, 발로 하는 공부

한 학기 동안 연애도 했겠다, 우리는 식도 올리지 않은 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2박 3일간의 일본답사는 ‘영딩이’로 하던 국제정치학 공부를 ‘발’로 하는 신선한 체험이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가장 좋은 착상들은 책상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며 찾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략) 완만한 오르막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책만 읽었을 때는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과 상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일본 근대사의 현장을 직접 거닐고 역사의 공기를 마시며 이론이 아닌 삶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발표를 안내자로 삼아 데지마, 글로버 가든, 아리타 도자기 박물관, 일청강화기념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등에서 시공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말(言)과 길(道)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새 저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있었습니다. 일본 근대사의 분기점이 된 장소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매일 저녁 사케 한 잔과 함께 동기들 및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 동안 겪은 성공과 실패, 사랑과 실연 등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삶의 빛과 그림자를 공유하였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하나의 역사라고 했을 때 모두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에게 털어놓는 속마음도 깊어져 갔습니다.

사랑방을 나오며: 손님에서 주인으로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빈부귀천의 구별은 없다. 오로지 학문을 열심히 닦아 사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며, 무학(無學)인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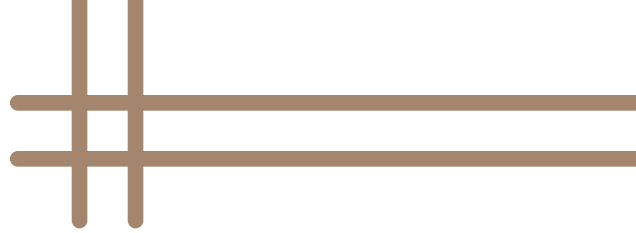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학문의 권장〉의 한 대목입니다. 빈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어떤 직업을 갖든 학문이 귀천을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많은 부분은 학문 즉, 공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학문을 통해 “일신(一身) 독립하고, 일가(一家) 독립하고, 일국(一國) 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학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으로 종속되지 않게끔 해주며 이러한 독립적 사고는 자유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란 결국 내가 내 운명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정치학도로서 저는 지금까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 수업을 통해 동서고금 국제정치학을 살펴보면서 지적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 다가오는 복합의 세계에는 우리가 스스로 표준을 세우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신, 일가, 일국의 독립을 넘어 천하(天下) 독립의 기틀을 짜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해서 겪어야만 했던 지배와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지난날의 비극들과 단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7기 이하형

이제 두서 없이 길어진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방의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비단 사랑방의 손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손님'이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사고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론과 용어를 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영선 선생님과 사랑방에서의 한 학기 공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식론과 더불어 존재론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손님들 중 하나였던 제가 사랑방의 문을 나설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제 사랑방의 '손님'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7기, 8기 이화영 (2017-02-13)

‘사랑방 어때?’ 외교관시험을 준비 중인 A양과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친구인 B양 그리고 대학원진학을 준비 중이던 후배 C군에게서 몇 일 간격을 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정치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밖에 없는 분인 하영선교수님의 한 학기 강의와 해외답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랑방 과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사랑방을 수료한 후 질문이 쏟아진 것입니다. ‘엄청 좋았어! 너도 꼭 지원해’ 같은 짧은 대답은 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절대적으로 사랑방에 투자하며 치열하게 공부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지금까지 소화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양의 읽기와 쓰기과제들을 매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과 '꿈', '삶', '앓', '함'에 대한 질문들에 제대로 마주할 자신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랑방 이전, 진짜 공부를 찾아서

“고지학자위기(古之學者爲己), 금지학자위인(今之學者爲人)”

논어 14편2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했지만,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대학시절 한국이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은 이후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허기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저자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소화하는 공부에 중점을 두어야 했고, 글을 깊이 있게 읽으며 의미 있는 성찰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저의 욕심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공자가 말하는 소위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과연 학문을 하며 진정 자신을 연마하는 공부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저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었던 것이 바로 사랑방의 정신적 지주 하영선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랑방의 시작이자 끝, 하영선 교수님

하영선 교수님을 다양한 국제정치 서적, 동영상, 세미나 등을 통해서는 접할 기회는 많지만, 실제로 만나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방을 통해서는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번 교수님에게 4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방 수업의 핵심은 교수님의 50년 공부내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방 수업 전에는 항상 상당한 양의 읽기를 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주 수업 전에 예습일기를 써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공부해오신 교수님과 대화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매주 현지답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작성준비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데, 제 학교생활을 통틀어 이 정도로 많은 공부를 소화하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영선 교수님과의 만남은 한 주라도 땀과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사랑방 수업, 존재론에 대한 질문을 하다

항상 공부의 양에 압도되어 힘이 들 때, 그래도 저를 계속 지탱해 주었던 것은 바로 시험을 위한 공부, 어느 무언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정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날카로운 교수님의 지적과 존재론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7기, 8기 이화영

사랑방 수업을 관통하는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저자 혹은 본인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게 되고, 사랑방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꿈', '삶', '앞', '함'에 대해서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홉스, 마키아벨리, 루소, 칸트 등의 글을 읽으며 교수님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을 무수히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그 인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며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왜' 라는 물음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지?' 사랑방 참가자들 대부분이 사랑방 프로그램이 깊이 있는 공부와 함께 본인을 제대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소감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고 있었던 제대로 된 공부였습니다.

사랑방 답사, 특별한 우리의 특별한 시간

한 학기 동안의 쉽 없는 진짜 공부는 해외현지답사로 마무리 됩니다. 사랑방 답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답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영선교수님과 참가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답사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답사일정과 모든 준비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진행하고, 학생들이 맡은 각각의 장소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서 그와 관련된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후, 현지 답사 때 각자 조사한 것을 발제 합니다.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의 전초기지로 사용한 '나고야성터'가 제 답사장소였고, 이곳과 연결하여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의 일본심상에 대해 발제 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연구한 대본을 가지고, 답사 현장은 자연스럽게 무대가 되면서 발제는 흡사 연기를 펼치듯 진행됩니다.

발제를 거치면서 답사지가 더욱 의미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험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벅차는 공부를 소화하면서 끈끈해진 동료애는 고된 사랑방 일정 속에서 절정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7기, 8기 이화영

엄격한 심사를 거쳐 뽑히게 된 우수한 학우들과 타국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이에 사랑방 답사는 답사 그 이상의 특별한 시간들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 그 후, 꿈을 직시하다

저의 꿈은 일본지역전공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방 이전에 저는 '나는 공부를 계속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남모름 고민과 학자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치열하게 다양한 동서고금의 학자들과 지평을 넘는 대화, 하영선교수님의 가르침, 학우들과 열띤 토론을 하는 가운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 나를 위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지적 유격훈련'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부가 얼마나 나를 성장시켜 주는가를 발견하면서, 부족한 만큼 더욱 노력하자는 의욕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저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거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치열하고 진지하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과정이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 힘들었지만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다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친구들과 같이 '사랑방 어때?' 라면서 고민하면서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사랑방에 꼭 지원해 보길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의 일원으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신 하영선 교수님의 지도 하에, 공부에 진지하게 임하는 친구들과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강력 추천합니다!

#5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12기 장도경 (2019-07-11)



‘정직한 공부를 하고 싶다.’ 사랑방을 함께하였던 동기의 말이기도 했던 ‘정직한 공부’는 사랑방을 하는 5개월 내내 저를 괴롭힌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직한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해온 20년 남짓의 공부는 입시와 성적을 받는 것에 특화되어 있었고, 공부의 중심은 저자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여 소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손톱만큼 아는 것을 집채만 한 바위처럼 포장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기에 저의 공부는 정직하기보다는 알파하였고, 결과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에 가까웠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하영선 선생님을 만나고 저는 정직한 공부를 하기 위한 두 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학문에 대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첫 수업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지적 연애’는 학문에 대하는 태도와 직결됩니다.

“8평 남짓의 연구실에 50년 가까이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답답해하리라 생각하지만 나는 전혀 답답하지 않다. 책상에 앉아 나는 세계를 보고, 死者를 살려와 대화를 나눈다. 지루할 틈이 없고 답답할 틈이 없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지적 연애에 빠지기를 바란다.”

저에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지적 연애는 작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지적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 연애’가 필요조건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한 학기 사랑방 과정은 어쩌면 지적 연애를 체화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2기 장도경

제가 본격적으로 지적 연애에 빠지게 된 계기는 사랑방 2주차 때였습니다. 대학원 학기가 시작하면서 일주일 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읽기 자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지적 사랑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적사랑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군분투가 제게 남겨준 것은 내가 이렇게 애정이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이었느냐는 좌절감이었습니다. 패인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요령이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질실함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마음가짐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방의 기간을 많은 자료를 단시간에 볼 수 있게 능력을 키우는 훈련 기간이라 생각하고 지식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습득자로서 거듭나는 과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같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북리뷰라도 읽어가면서 제 연애 상대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자료를 단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저만의 방법을 고민하였고, 사랑방 회차가 지속될수록 시행착오를 겪으며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나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던 것은 훈련할수록 변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속도에 탄력이 붙는 것과 동시에 지적 연애를 할 수 있는 따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적 연애는 다시 난관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읽고 나는 무엇을 남들한테 전할 것인가. 전할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단시간에 보는 데 급급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눈을 키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할 무렵,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다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국제정치학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2기 장도경

학부와 석사과정 동안 국제정치학 공부를 해왔고, 공부하는 이유가 나름 명확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선생님 말씀의 울림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연유는 국제정치학 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제 목표가 과연 국제정치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국제정치학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고,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저의 상황을 알기라도 하신 듯 선생님께서는 국제정치학도라면 응당 제국적인 마인드와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제국이 아닌데 왜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하며, 제국이 아닌 국가에서 태어나 어떻게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사랑방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질서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중이 바라보는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국제정치학을 알아야 했고, 사랑방 세미나는 이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천 년이 더 된 고대 천하질서부터 명·청 시기의 천하질서를 배우며 21세기 중국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냉전 질서와 데탕트를 공부하며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읽기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인도-태평양을 바라다보고 있는 미국의 제국적 마인드를 분석하며 미·중을 주연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연극 공간 속에서 미중의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연기가 펼쳐질지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측이 곧 한국이 놓인 정치적 현실이기에 사랑방의 공부는 늘 현실과 맞닿아있는 살아있는 공부였습니다. 더불어 국제정치학도로서 제 공부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광복이 왜 우리에게만 분단질서로 다가왔는지, 전 세계가 데탕트의 평화시대로 나아갔는데 한반도는 왜 그러지 못하였고, 아직도 냉전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2기 장도경

앞선 예측이 현실과 어긋날 때 어떠한 비극이 한반도를 엄습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천하의 근심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

중국 북경의 유리창을 답사할 때, 찻집 주전자 판에 놓인 문구입니다. 북송의 유명한 정치가인 범중엄이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남긴 문구로 답사를 통해 사랑방의 한 학기를 마치는 저희에게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사랑방을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저는 이전과는 다른 국제정치학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귀중한 시간을 경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고민했던 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사랑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한 학기 동안 고민한 제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6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14, 15기 김대영 (2021-01-05)

‘국제정치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사랑방 지원을 하면서 든 첫 생각입니다. 3년 동안 정치외교 전공 수업을 들었지만 주로 미국의 국제관계 이론 위주로 세계 현상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을 기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와중, <동아시아질서건축사>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다가온 강의계획서는 신선했습니다. 선진시대부터 청나라까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펴본다는 생각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한 것은 하영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저술한 원서를 읽고 연습일기를 매주 쓰는 일이었습니다. 난해하기도 했지만 페어뱅크스, 니시지마 사다오, 로사비와 같은 중국학자들 그리고 양계초의 <음빙실자유서>, 유길준의 <서유견문>,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과 같이 당대 지식인의 생각을 훑어볼 수 있는 기회는 생애에 다시 접하기 힘들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규수의 시 구절,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냉안간시무 허심독고서). 차가운 눈으로 시무를 바로 보고 비운 마음으로 옛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다 이해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쓴 연습일기를 모으면 책 한 권은 배출해 낼 수 있을만큼의 분량이었습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4, 15기 김대영

그동안 수업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있다면 ‘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겨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을 분석한 글이 수만 건 이상 배출되지만 정작 본질을 잡아내어 김정은의 심상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대회 문서, 노동신문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어를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시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러한 경지에 오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곱씹어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는 14기 답사 보고서를 준비하며 <모택동 선집>을 읽을 때 항상 옆두에 두며 고찰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세계정치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고찰하며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방법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정치의 본질과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actor-stage-performance를 오가며 제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서구 중심 질서 이후의 세계,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중국 북경과 일본 규슈 답사를 갈 수는 없었고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세션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선 회식, 동기들과의 단톡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머리와 마음을 키우고, 공간을 넓고 또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사랑방을 추천합니다!

#7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15기 정다운 (2021-01-25)



누군가 저에게 지난 사랑방에서의 시간을 묻는다면,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비로소 나와 우리의 국제정치학을 꿈꾸기 시작한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방 한 학기동안 넓은 시공의 축을 함께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를 버리고 그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들어가 그들의 심상을 읽어내면서, 그들이 삶의 고민 속에서 어떤 삶을 찾아 헤맸으며 어떤 꿈을 실천해보려 했는지를 고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순탄하지 않은 삶을 불평하기보단 삶에서 비롯된 진한 체험에서 비롯된 절실한 고민들을 학문으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껏 진정한 공부를 해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그들의 모습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내 삶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들이 해주는 이야기에 푹 빠져 밤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치고 나태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껏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질문과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마주하고 체현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질감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또 한 주 내내 끙끙 앓으면서 고민했던 생각들을 말과 글로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큰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삶에 다가오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껏 짧은 배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더 많았기에,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5기 정다운

저의 삶을 바로 마주보는 것 자체를 무작정 두려워했던 건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반성을 단순한 성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기에 매주 크고 작은 고비가 찾아왔지만, 하영선 선생님 그리고 15기 동기 분들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제가 걸어갈 앞의 여정을 함께할 지적 동반자를 만나고 저의 삶에서 시작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살아있는 공부'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역사의 전철을 밟아온 선배들의 삶, 앎, 꿈, 함에 비추어 나의 삶에서 시작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보냈다면, 사랑방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나의 국제정치를 꿈꾸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에게 사랑방은 자신이 속한 시공간의 맥락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 현실을 제대로 알고자 할 때 비로소 미래를 바라다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구미의 국제정치학을 답습하기보다 상대의 지평으로 들어가되 자신의 비전으로 돌아와 내 시야가 그들에게로 넓어질 수 있도록 설명과 이해의 조화, 그리고 물상과 심상의 결합을 고민하는 양손잡이 투수의 눈과 힘도 길러주었습니다. 이로써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곤 하시는 '사랑'은 타를 앎으로써 아를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라고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개인을 넘어 '우리'라는 전체를 함께 품는 사랑 속에서 제대로 된 앎을 통해 '세계'라는 거대한 삶터를 더 낮게 하려는 미래의 국제정치학을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 복합 변환의 시대를 맞아 보다 입체적으로 세계정치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 단순히 멀리 떨어져 관망하는 '관찰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체험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5기 정다운

시공간적으로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면서 현재를 바라보는 지평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여러 무대에서 펼치는 그들의 연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출 때, 비로소 매력적인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스스로 작지만 날렵한 '늑대거미'가 되어 춤추는 그물망을 만들고, 21세기 다가올 복합의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미학적 상상력을 계속 키워가고 싶습니다. 나아가 제가 바라보는 존재들의 순간적 인상들을 사진 찍듯이 남기기보다, 보다 긴 호흡으로 저의 삶이 위치하는 시공간에 대한 애정 속에 끊임없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다른 이와 한마음 한뜻으로 공진하고 공생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부터 주변의 많은 고마운 분들께서 사랑방을 적극 추천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대한 악명도 익히 들어왔던지라 선뜻 사랑방으로 향하는 문을 용기 내어 두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망설임에 망설임을 거듭하다 사랑방의 문을 두드린 건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처음 국제정치학도가 되어야겠다는 초심은 주어진 과제나 상황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하지 않을 때마다 조금씩 열어졌습니다. 자연스레 연구에 대한 자신감도 줄어들고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에 한없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낸 덕분에 어려운 시국에 점점 더 공부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만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더없이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에 앞으로도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겠지만 저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매번 같이 고민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하영선 선생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꿈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 다시 이 곳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나와 우리가 함께 하는 창조의 국제정치학으로 향하는 길을 힘차게 걷고 있는 주인공으로 더욱 성장해있길 기대해 봅니다.



#8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16기 손승포 (2021-07-15)

‘군을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였건만 취업을 하지도 대학원에 진학하지도 않았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만은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 공부야 아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동아시아연구원(EAI) 홈페이지에서 “동아시아질서건축사”라는 학기 주제로 강도 높은 지적 훈련을 제공하며 개인 연구를 위한 답사까지 지원해주는 “사랑방” 프로그램 소개글을 읽게 된 나는 어느새 가슴이 두근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성의 목소리를 들으면 실패가 없고, 가슴의 소리를 들으면 후회가 없다”고 하였다. 내가 추구하는 삶이란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후회가 없는 가슴의 소리를 듣는 삶이기에 나는 과감히 내 젊음을 사랑방 공부에 걸고자 동아시아연구원의 문을 두드렸다.

박규수의 사랑방, EAI 하영선의 사랑방.

사랑방 첫 주부터 하영선 교수님의 혹독한 지적 훈련이 시작되었다. 거진 하루에 책 한 권을 독파해나가는 속도로 정신없이 달려오던 와중 교수님의 저서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에서 사랑방 공부 모임의 시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문명사적 변환의 시기로 평가받는 19세기 말 평양 감사를 지낸 박규수가 청에서 『해국도지』를 들여와 자신의 사랑방에서 젊은 선비들과 시작한 공부 모임이었으니, 후학을 양성하는 일종의 사설 교육 기관이었던 셈이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6기 손승포

동아시아의 천하질서(天下秩序)가 붕괴하고 전통적 유교 관념이 해체되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 중국과 일본 역시 새로운 사상과 이념, 가치를 담아낼 그릇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는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 삼국에서 비슷한 형식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내게 된다. 조선에서는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유길준과 김옥균, 박영효와 서재필, 민영익과 같이 조선의 개혁을 주도하는 신지식인들이 탄생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이끌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배출된 문하생들이 메이지유신을 주도하며 일본 정치의 주류로 떠올랐고, 중국에서는 Kang Youwei(康有爲)가 사숙 만목초당(萬木草堂)을 열어 량치차오(梁啓超)와 같은 근대 사상가를 양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박규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서 유리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이후 35년 간의 굴욕적 지배 끝에 조선은 해방을 맞게 되었으나 국가는 분열되고 미소 간의 국제적 체제 갈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구체적 형식을 통해 표출되게 된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후 세계가 50여 년에 걸친 이념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고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21세기 한반도에서는 차가운 군사적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는 시대적 역설이다.

그렇다면 지금 EAI 하영선의 사랑방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거 삼 천 년 동아시아를 풍미한 천하질서가 저물고 근대적 국제 질서가 들어선지 이백 년이 채 되지 않는 현 시점, 우리는 복합화라는 또 다른 문명사적 변환을 준비하고 있다. 심화하는 미중 갈등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북의 도발은 민족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 정치적 인식의 빈곤 끝에 발생한 망국과 분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어느때보다도 기민하게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 나아가 이를 주도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다.

사랑방 공부는 고대 동아시아를 관통하던 천하질서를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치(禮治)에 기반한 책봉체제론을 주장한 페어뱅크(J. K. Fairbank)를 필두로 힘의 균형에 기반한 다극체제가 과거 동아시아에도 존재하였음을 주장한 로사비(M. Rossabi), 그리고 헤비아(J. L. Hevia)가 제시한 회유원인(懷柔原人)으로서의 유연한 대(對) 티벳 외교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석학들의 글을 읽으며 우리는 천하질서의 진면목을 포착하고자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그러나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지적하듯 천하질서의 핵심은 단일한 이론적 틀에 의해 포섭될 수 없는 복합성에 있음을 깨닫는 데에 이르자 하영선 교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국제정치학의 정수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명청기 중국은 동방의 조선에게는 대소사대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치하였으나 북방의 몽골에게는 정벌을 통한 힘의 원칙을, 서부의 티벳에게는 회유를 통한 기미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대외 정책을 활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국제 관계 역시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양태와는 달리 점차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작금의 미중 관계 관계를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패권 갈등의 양상을 통해서만 읽어내는 것은 그 이면에 전개되고 있는 경쟁과 갈등, 협력과 공생의 복합성을 포착하지 못한 피상적 수준의 해석에 불과하다. 미중은 군사적으로 갈등하고 산업적으로 경쟁하면서도 높은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비전통적 지구적 위협에 있어서는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역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직접적 군사적 충돌은 피하되 (신형대국관계) 중국의 핵심 이익이 결부된 사안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신형주변국관계) 복합적 외교 원칙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군사, 경제, 정치, 문화, 기술 등 다양한 차원의 관계망이 사안과 시기별로 중층적으로 엮여 나가는 복합 직조된(multi-textured) 지역 질서의 형성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북 관계, 대중 관계, 대일 관계를 고민할 때에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지난 4개월에 걸친 사랑방 공부는 곧 기존의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고 다시금 빚어내는 '창조적 파괴'의 시간이었음을 추억한다. 사랑방 공부 첫 주차에 교수님의 『사랑의 세계정치』를 읽은 이후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사랑의 세계정치』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진부한 기시감이 아닌 강렬한 이질감으로 내가 과연 동일한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있는 것이 맞는가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즉,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만큼 혹독했던 공부의 과정 속에서 국제정치학에 관한 나의 시공간적 인식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압축적 성장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내가 EAI 사랑방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방 후기를 작성한다. 매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희 사랑방16기를 지도해주신 하영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고된 '지적 노동'의 과정을 즐거운 '지적 연애'의 과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사랑방 동기분들에게도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13주간 원 없이 공부할 기회를 주신 동아시아연구원 백혜영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하영선 교수님이 사랑방 수업 중 언급하신 공부의 자세 2가지를 매순간 기억하고 한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자 자존 의식으로 서 의욕적으로 텍스트를 읽어 나가고 끈질기게 공부에 천착하는 정신이다. 그러나 핵심은 두 번째로 교수님은 학문에 대한 겸손함을 강조하신 바 있다. 어설픈 지식에 기반하여 자만하는 순간 추락할 수 있음을 언급하시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는 학문의 벽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고자 한다.

#9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17기 유지현 (2022-01-06)



한 학기 동안의 사랑방 수업은 정말 쉽지 않은 지적 훈련의 과정이었다. 매주 적지 않은 분량의 리딩이 주어졌기에 잠을 줄여야 했던 날도 많았고, 한 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지 않을 때면 밤을 꼬박 새우며 정리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사랑방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지금, 사랑방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되짚어 봤을 때 지난 14주간의 여정은 마냥 고된 시간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세계 석학들의 생각을 공부하면서 지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내가 직접 경험한 세상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좁은 범위의 구미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며 평면화되었던 나의 국제정치학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생동감 있는 세계정치학으로 바뀌게 되는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이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사랑방과의 만남은 작년 2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창 유학을 준비하던 중 이루어졌다. 분명 오랜 시간 계획해 온 유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유학을 위한 지원서 작성보다 사랑방 프로그램으로 향했다. 정확히 어떤 힘에 이끌려 오랜 시간 계획해온 유학을 뒤로하고 사랑방을 선택하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살다보면 가끔 예기치 못한 선물같은 만남이 주어지듯, 사랑방과의 만남도 나에게 그런 예기치 못한 선물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다. 더 깊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 사랑방을 만나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을 배우고, 또 앞으로 계속될 공부의 목적과 그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어 참 다행이었고 감사했다.



#10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19기 전선미 (2023-01-05)

“그것이 그런 것 같지 않다”

동주(東洲) 이용희 선생님의 말씀처럼, 학(學)을 통해 접한 국제정치와 현실에서 마주한 국제정치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고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제정치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마주한 현실의 개별성과 특수성 때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제정치학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우리의 국제정치에 대한 지적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적 고민은 쉬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환멸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알고 싶고 찾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EAI 사랑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청(晩靑) 하영선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방은 ‘지적 유격 훈련소’라는 명성에 걸맞게 혹독한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제정치의 진경(眞景)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잠들어있던, 아니 어쩌면 망자와의 대화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만날 수조차 없었고 또 어느 날은 만났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거푸 실패의 고배를 마시던 중, 만청의 ‘사랑의 국제정치학’을 지적 만남의 가교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지적연애를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정치학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변용을 다루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 국제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였습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사랑방 19기 전선미

근대 유럽과 국제정치사상을 시작으로 한국의 세계정치학까지 이어진 지적 여정을 통해 마키아벨리부터 동주까지 깊고 넓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겪었던 절박한 현실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그리고 절망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가엽기 그지없던 짝사랑을 끝내고 제대로 된 지적연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물상과 심상을 통합하여 들여다보려는 지적연애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한계에 봉착해야 했고, 각자의 한계 내에서 성장하기 위한 지독한 성장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딘 후에야 짙은 매화향기를 만들어 내듯, 사랑방의 지적유격훈련을 견뎌낸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초보적 수준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박규수의 사랑방이 그러했듯, 21세기 만청의 사랑방 역시 좁게는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고 넓게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방의 가치와 정신을 자재삼아 마음 한 켠에 저만의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에 마음을 बे이고 때로는 뜨겁고 무모한 열정에 마음을 데이겠지만, 저는 이 곳에서 마음껏 꿈꾸고 답을 구하고 또 위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삶, 앓, 꿈, 함'의 여정이 설레고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학교를 떠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기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깊은 울림과 가르침을 주신 만청 하영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사랑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EAI 모든 관계자분들과 함께 완주한 사랑방 19기 동기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방 20기 여러분들! 미리 환영합니다.



#11 EAI 사랑방, 그 후!

사랑방 20기 김민수 (2023-07-03)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국가나 세계관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국제(國際; interstate)라는 환경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면, 결국은 공생과 협조와 보편주의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공존이 상대화된 타자들이 서로를 잠시 눈감아 주는 것만으로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질서의 내용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생각 역시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학부 때 동양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사상 속에서 이상의 문제의식에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고, 그 연장 선상에서 하영선 교수님의 사랑방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업 조교를 맡고 있던 교수님의 추천만 믿고 무작정 시작한 사랑방 수업은 생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준비해도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연습일기를 제출할 때마다 괜히 들어왔다는 후회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고통과 인내 끝에 만나게 되는 과거-언젠가는 현재이자 현실이었던 시간들-는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는 좋은 양분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알궃기도, 또 무섭기도 한 점은 여러 우연과 필연, 이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했던 꿈,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굴절된 이상 혹은 운 좋게 달성된 목표들이 모여 현재를 만들고 언젠가는 과거가 됩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갈등하면서도 공생하는 과거는 지금과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도저히 하나의 변수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현실이 우리가 놓인 환경이라면, 그에 대한 고민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공부하면서, 심상과 물상이 복잡다단하게 직조해내는 수천 년의 동아시아 질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방대한 역사가 주는 무게감은 쉽게 자만하지 않으면서 세상사를 신중하게 고민해야만 한다는 교훈 역시 주었습니다.

이렇듯 사랑방에서 공부하면서 현실이 단순히 물상으로만은 규정되지 않고, 심상과 물상의 복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앞으로의 질서를 꿈꾸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중 경쟁의 가운데 행위자의 복합화는 어떤 질서로 더 많은 행위자를 포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경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차원의 공생을 가능케하는, 보편적인 질서-단지 물리적 범위로서의 보편성을 넘어서서, 도덕적 범주에서의 보편성-의 핵심적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 답은 제 손에 모호하게만 주어져 있고, 어쩌면 평생을 공부해도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방에서의 경험은 '삶, 앎, 꿈, 함'의 여정을 곳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심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영선 교수님께서 평생을 한국의 국제정치를 고민하시는 데 쏟은 시간을 제가 받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해준 20기 동학분들과 사랑방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신 EAI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AI 사랑방 10주년 기념

'사랑방, 그 후'

글 모음집



EAI
EAST ASIA INSTITUTE